

40년간 기록한 진안 마이산 풍경 전시

‘마이산 사진작가’ 정길웅 씨, 12일까지 국회아트갤러리서 ‘마이산의 사계’ 사진전 개최

마이산만 찍어온 ‘마이산 사진작가’ 정길웅 씨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마이산 사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정길웅 작가는 지난 40여 년간 진안 마이산을 촬영해왔다. 그는 마이산에 머물며 수많은 계절과 시간을 기록했고, 작품에는 후보정 없는 사실 그대로의 풍경이 담겨 있다.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수년간 기다리며 촬영한 작품들은 마이산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안개, 구름, 빛의 변화가 어우러져 수목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마이산의 사계절 풍경 15점이 소개된다. 사진 속 마이산은 파노라마처럼 웅장하게 펼쳐지며, 자연이 빚어낸 다양한 민낯을 담고 있다.

정 작가는 “마이산의 풍경은 누구나 직접 마



마이산만 찍어온 ‘마이산 사진작가’ 정길웅 씨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마이산 사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주할 수 있는 현실이자 사실”이라며, “자연의 소중함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마이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

고, 사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의 매력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시 개소식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 음식문화 발전 · 한식 국내외 확산 ‘맞손’

전주문화재단-한식진흥원, 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과 한식진흥원이 전주 고유음식문화 발전과 국내외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지난달 29일 오후 한식진흥원 이음홀에서 전주 음식문화 발전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락기 대표이사과 이규민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 음식문화 자원 및 네트워크 공동 활용 △전시·체험·교육 등 한식 관련 콘텐츠 공동 기획·운영 △주요 행사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주 음식문화를 매개로 한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내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연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과 함께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배움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지난달 29일 오후 한식진흥원 이음홀에서 전주 음식문화 발전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터에서는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 콩나물 잡채 만들기’ 쿠킹클래스가 열렸다. 전주를 대표하는 식재료인 콩나물을 주제로 △전주 콩나물의 특징 소개 △조리 시연 △음

식 만들기 체험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전주 음식문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순창 옥천골 · 섬진강 미술관, 기획전시회 개최

순창군은 두 개의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먼저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순창공립 옥천골미술관에서는 이희춘 작가 초대전이 열린다.

이희춘 작가는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몽유화원’ 세계를 펼쳐온 화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과는 또 다른 시도를 선보인다.

특히 이전 작품들이 인간과 동식물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전시는 관계를 넘어 각 존재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몽유화원을 구성했다.

아울러 순창공립 섬진강미술관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20회 전북 현대판화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판화의 아름다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판화 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데 의미를 두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꾸준한 교류의 장으로, 서로의 작품을 나누고 협력하며 판화라는 장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전시회 모두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7)

착수금을 주겠소.

- 오 상 근 -

결심을 굳혀가고는 있었지만, 막상 박창수 앞에 서니 걸음이 섣뚱 내디뎌지지 않았다. “.....좋습니다.”

“승락하는 거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소. 강동식 씨는 일단 한번 된다고.”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너는 머슴이니 도깨질이나 열심히 하라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일을 못하겠소. 이런 말이 목을대까지

치받고 올라왔지만 침을 삼켜 눌렀다.

“착수금을 주겠소. 어떻게 주는 게 좋겠소?”

동식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창수가 자꾸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 불편한 속이 더 불편해졌다.

“만나시지요.”

박창수는 동식의 요구에 잠시 말이 없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나중에 청부한 건이 탈이 나면 면피하려고?

“좋소.”

“언제 어디에서 만날까요?”

“며칠 안으로 다시 연락하겠소.”

오늘도 강용대를 왜 죽이려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

“이명주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명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모르는 번호가 떠서 받지 않으려다

받았는데 뜻밖의 이명주였다.

반갑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여러 마음이 동식의 속을 복잡하게 얽히게 했다. 혼잡스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대답하는 동식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제가 괜히 전화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명주가 전화기에서 떠나버리면 섭섭하다.

이명주는 오늘 저녁 농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농악 공연을 하는데 의미있는 공연인가 와서 보는 게 어떨겠냐는 것이다. 좋아할 것 같아 전화드렸다는 말을 덧붙였다.

“예, 가야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할 것 같아 전화 드렸는데 어찌 안간다고 말을 하겠는가.

농악전수관에서 이명주를 만났을 때, 동식은 그녀가 동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감지했다. 이성적인 느낌으로 인한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꼈을 때의 감정이 아니었다.

동식의 디엔에이에 내재되어 있어 동식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뭔가를 그녀는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아우라에 동식은 숨죽이고 복종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차를 몰아 농악전수관으로 갔다. 전수관 주차장에는 의외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었다. 한적하기 그지없는 시골구석에 자리한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더니 농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걸 느끼며 동식은 놀랐다.

동식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자 막 공연이 시작되었는지 무대는 조명이 꺼지고 사회자석만 불이 밝혀져 있었다. 곧 사회자가 등장하였다.

“.....고창 옛어른들은 농악을 굿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굿을 한다. 굿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고창농악을 3세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무장농악의 틀을 잡은 쇠의 명인 박성근 선생과 장구 명인 김만식 선생을 1세대라고 한다면, 이분들로부터 굿을 배운 황규연, 전경환, 김오채 선생이 2세대라 할 수 있고, 오늘 무대에서 만나보실 분들은 2세대 선생님들에게 사사한 3세대 고창의 굿쟁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나게 놀아볼 곳관인 ‘관굿’은 바로 1세대 박성근 선생이 정립하신 것을 황규연 선생이 이어 받아 현재 세대에게 전승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연행할 판굿 ‘도독쟁이굿’을 연출하고 직접 상쇠로 연행하시는 이명주 선생은 고창 농악 3세대의 기틀을 잡은 분이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창농악전수관 관장과 고창농악보존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